월요광장

자기 회복의 위대한 긍정을 위하여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사람은 매일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표현하고 살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연결되는 감정들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드물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으로 곧 일어날지도 모를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나온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부분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무분별한 혐오, 피해 의식으로 변이되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표출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실체와 원인을 제대로 인식할 용기가 부족할수록 분노와 혐오의 감정은 밖을 향해서 폭주한다. 그리고 분노와 혐오는 일상의 영역과 형식에 스며들어 어느새 타인을 향한 시선을 규정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이는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 낸다.

사실 우리가 느끼고 겪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감정은 불완전성과 결핍을 지닌 인간이 직면한 상황에서 내보이는 심리의 표현이고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눈앞에 닥친 위험을 알아차리고 제때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두려움의 맹점은 이 감정이 본능적인 반응이기 쉽고, 이 때문에 차분한 생각과 판단 대신에 성급하고 맹목적인 방식으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왜곡된 행동으로 나간다는 점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지목된 원인들을 앞세워 분노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원인 진단과 규명은 분노와 증오, 혐오와 차별,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애초에 막연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임을 잊게 한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혐오감과 맹목적이고 차별적 분노를 정의감과 질서, 선을 위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늘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정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불가능하다. 타인의 입장과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없다면, 서로가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공감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결속과 연대도 할 수 없다. 이런 세상은 더 폭력적이고 잔인해서 동물의 왕국과 다를 것이 없다. 누구나 자기가 지닌 결핍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찾고, 다가가서 함께하는 용기를 얻는다. 같은 맥락에서 루소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 다만 문제는 쉽게 상처받고 왜곡되는 감정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현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분노와 혐오감, 차별 감정의 뒤로 숨을 때 두려움의 제국이 세워진다. 이런 의미에서 마사 누스바움은 흔히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삶의 모든 방식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바탕으로 하며, 또 그래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할 수 있으며 어두운 감정의 질곡에 갇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이면에는 항상 희망이 깊게 숨 쉬고 있다. 어떤 희망도 없는 곳에는 오직 깊은 절망과 허무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이 희망을 이미 잉태하고 있듯이, 허무함이 모든 의미의 상실과 가치의 파괴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동적 허무주의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면,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스스로 낡은 집을 허무는 것은 능동의 허무주의다. 익숙한 것을 허무는 고통 속에서 더 큰 지혜를 깨닫고, 겪고 있는 아픔을 더 큰 건강을 위한 기회로 만드는 것을 니체는 '위대한 긍정'이라고 표현한다.

새로운 길을 내지 않고는 위대한 긍정과 건강에 이르기 어렵고, 이때 느끼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본질과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눈 먼 분노와 허무주의 대신에 건강한 자기 회복에 이를 수 있다. 즉, 선과 옳음의 가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독점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매 순간 다시 획득하고 공유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능동적 허무주의와 유쾌한 긍정을 통해서만 무력감과 두려움이 만들어 내는 분노와 혐오라는 절망의 질병을 막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이 고통의 시간을 삶을 위한 지혜의 시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필의 향기

산 위에서

김향남
수필가·조선대학교 외래교수

어스름 새벽녘에 집을 나선다. 목적지는 지리산 노고단, 내 단골 산행 코스다. 중간(성삼재)까지는 차로 갈 수 있으니 드라이브하기에도 좋고 거리도 그리 멀지 않은 편이라 하루쯤 보내기로 그만한 곳도 없다. 해발 1500m가 넘지만 잘 닦인 길을 따라 한 시간 남짓 오르면 하늘정원이라 불리는 산등성이를 흐뭇하게 걸을 수 있다. 평지나 다름없는 드넓은 고원에는 키 낮은 초목들이 서로서로 어깨를 겯고 있다. 그 사이로 단정히 놓인 목계단을 따라 걸으면 천상으로 오르는 듯 황홀하기까지 하다.

그 소요유(逍遙遊)의 쾌감을 한껏 부풀리며 일찍부터 길을 서두른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새들이 수런대고 고양이가 지나간다. 노인이 걸어가고 아가씨가 종종걸음을 친다. 청소차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달려간다. 나는 마을을 지나고 강변을 달리고 고개를 넘고, 그리고 숲으로 들어선다. 사방은 푸른 환(環)을 두른 듯 아득히 벌어 있고, 골짜기 사이로 점점이 마을이 보인다.

이제부터는 숫제 걸어서 가야 한다. 수없이 왔던 곳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길이다. 들메끈을 고쳐 매고 발걸음을 내디딘다. 두 발을 들었다 놨다 바지런히 움직이며 봉우리를 향해 간다. 내딛는 걸음에 리듬이 실리고 몸도 마음도 생기가 돋는다. 휴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제법 많다. 말소리를 듣자 하니 팔도 사람이 다 모인 듯 다채롭기도 하거니와 모두가 한 곳을 향해 걷는다는 사실이 어쩐지 뭉클하다.

꽃과 나무, 새소리, 바람 소리와 더불어 걷고 또 걷는다. 몸에는 땀이 배고 후끈 더위까지 느껴진다. 이쯤 되면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한다. 발걸음이 느려지고 꾀 대기를 더듬는 횟수가 점점 잦아진다. 그곳은 아직도 아득히 멀다. 달릴 수도 없고 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갈 수도 없는 곳. 머리 위에 산 하나를 이고서 터벅터벅 걸어간다.

이윽고 산마루. '좋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예가 바로 하늘 아래 첫 동네일까. 바람도 햇살도 나무도 풀도 모두가 상큼 삽상하다. 숨통이 트이고 걸음은 다시 날아갈 듯 가볍다. 표지석을 지나고 돌탑을 돌아 널찍한 바위 끝에 선다. 첩첩 봉우리 사이로 산안개가 흐른다. 먼 듯 가까운 듯 까마귀가 날고 살뜰하게 바람이 불어온다. 언제 다 오를까 돌아서고 싶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것만이 못내 느껍다.

새삼 그 공로를 두 발에 돌리고 싶다.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내디디며 쉼 없이 걷기를 반복한 결과 마침내 이 산정에 이르지 않았는가. 두 발이 만약 걷기를 멈추고 무슨 까탈이라도 부렸다면 지금의 이 기분은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란 쉽지도 않거니와 지속하기도 어렵다. 그 지루함을 견디고 밀고 나아가야만 비로소 목적지에 닿는 법. 내 기꺼이 너희의 공을 인정하노라.

단언컨대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걷기는 물론이고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멈추지 않고 반복해야만 얻어지는 생명의 리듬이다.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고 맥박이 불규칙하고 심장이 쿵쿵거린다면, 누구라도 대번 목숨을 위협받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리라. 우리의 생명은 한순간도 그 경계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호흡도 맥박도 고르게 연속되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 부지런히 움직여서 리듬을 타야 한다. 그것이 삶의 조건이다. 바다의 파도도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며 리듬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또한 살리는 힘이다. 죽음을 그러안고 기슭에 섰던 사람도 치어 오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다시 힘을 얻지 않던가.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반복으로 채워진다. 매일 비슷한 하루를 살고 어김없이 다가오는 계절을 맞으며 반복적으로 흘러간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미세한 파동이 있을 뿐, 판에 박힌 되풀이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는 놀라움이 살고 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도 반복 속에 일어난 일이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사실도 반복이 알려준 것이다. 반복은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 주고, 같은 자리를 파고들어 재능이 되게끔 해준다. 그럴 때 우리는 화들짝 놀라움을 느낀다.

하늘과 바람과 검푸른 산자락만 있는 이 망망한 곳에서 자꾸 가슴이 벅차 온다. 다만 좀 길게 걸었을 뿐인데 이런 기쁨을 맛보다니! 성공한다는 것도 결국은 누가 얼마나 오래 반복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닐까. 모든 깨닫기는 어쩌면 반복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기 고

ESG 경영을 통한 국민 중심의 물 관리

기남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수도지원센터장

인류의 활동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물은 그 자체로 희소성과 높은 가치를 지닌 재화이기에, 꾸준한 관리를 통한 가치의 보전은 인류와 지역 사회의 존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흐름이다.

환경부는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를 계기로 상수도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도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수도법' 개정과 함께 2020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별로 수도 지원센터를 발족하였고, 물 관리 전문 기관인 K-water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립된 영·섬(영산강·섬진강) 유역 수도 지원센터는 출범 이후 상수도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섬 유역 수도 종합상황실'(가칭)을 구축하고, 유역 내 맞춤형 수도 시설 기술 컨설팅,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 등을 통해 상수도 인프라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수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년 1월 동시다발적인 한파로 전남 지역 지자체에 단수가 발생하고 있을 때 영·섬 수도 지원센터는 병물 공급 등 비상 급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이바지했다.

또한, 각 지자체 정수장 등의 수도 시설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공평하게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섬 수도 지원센터는 지속 가능한 물 이용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중심으로 유역 내 다양한 물 관리 주체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국민 중심의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해 물 관리 기관, 지자체 등이 개별 관리하는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을 통하여 가뭄 위기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역 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가뭄 시 용수 공급을 위한 신규 댐 건설을 억제함으로써 국가 예산 절감은 물론 댐 건설로 발생하는 환경 생태계 훼손과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과 유역 수도 지원협의회(가칭)를 발족하여 수도 사업자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운영 기술 공유와 지자체의 기술 지원 요구 파악을 통해 기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유역 내 수도 사업자들의 대국민 상수도 서비스 향상에 앞장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축 중인 '영·섬 유역 수도 종합상황실'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유역 내 26개 지자체 수도 시설 운영 자료를 연내에 연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광역 및 지방 상수도 운영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수도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대응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물 관리 전문 기관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영·섬 수도 지원센터는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을 통해 유역 내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社 說

"국민 통합 최우선" 윤 당선인 탕평책 주목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국정 운영 화두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제시했다. 초박빙 접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의 민의를 반영해 대화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엊그제 당선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또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앞으로 통합과 협치를 위해 어떠한 탕평책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역대 최소인 24만 7077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됐고, 영남과 호남 등 지역별 표심도 확연히 갈렸다. 그런 만큼 분열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화합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위해 진영과 지역을 넘어 인재를 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출신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호남은 인사 및 정책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아 심각한 소외를 겪어야 했다. 정의화 내각 등에 끼워 넣기로 한두 명을 중용하거나 '무늬만 호남'인 인사들을 기용한 게 전부였다. 윤 당선인은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내각 구성에서 호남 인사들을 과감하게 기용함으로써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선 기간 제시했던 호남 지역 공약들도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농철 앞두고 치솟는 비료값 농민 지원 확대를

국제 원자잿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영농철을 앞둔 광주·전남 농민들의 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협 경제지주에 따르면 현재 요소 비료 20kg 한 포대 가격은 2만 89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250원)에 비해 3.1배 뛰었다. 비료 가격을 연초에 정한 뒤 한 해 동안 운영하던 농협이 지난해에는 요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례적으로 한 번 더 가격을 인상한 여파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업인 부담 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업인별로 최근 3개년 무기질 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 보조를 적용, 사실상 보조금에 한도를 뒀다. 또한 원예(과수)용 비료는 보조에서 제외되고 농협이 아닌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한 비료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처럼 비료 종류와 구매처를 한정하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농민들은 정작 영농철이 되면 보조금이 소진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정부에 비료값 선별 보조 중단과 인상분 전액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료의 종류와 구매처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나마 80%까지만 보조하는 지원 대책이 농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농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종류, 모든 물량의 인상분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농철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농민들은 비료 가격 인상뿐 아니라 겨울 가뭄과 농기계 작업 대행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농가별 비료 보조금 한도 철회 등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광주·전남 지역 고대사의 뿌리인 마한(馬韓)은 역사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백제가 영토를 잠식해 소멸한 탓에 우리 역사서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학계에서 현재까지도 논쟁 중인 사안은 통설로 굳어진 마한의 멸망 시기다. 마한 병합 통설은 1959년 이병도 박사가 제기했다. 그는 일본 역사서인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를 들어 백제가 마한을 병합한 시기를 근초고왕 24년(369년)으로 보았고 공략 지역도 전남 지역 마한 잔읍(殘邑)으로 해석했다.

마한(馬韓)

한데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는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서기'의 연대로는 249년에 해당하지만 '삼국사기' 백제 본기와 비교하면 120년 차이가 난다. 학계에서는 심각한 연대 차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픽션으로 보기도 한다. 마한 병합 통설은 영산강 고대문화를 상징하는 옹관 고분 등 광주·전남 지역 고대사를 오독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마한 병합 통설은 1996년 복암리 3호분 96석실의 발굴로 통설의 지위를 잃었다. 옹관묘를 주 묘제로 사용하던 영산강 토착 세력(마한)이 6세기 초까지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고고·역사학계에서는 이 발굴을 토대로 근초고왕 마한 병합설을 부정하는 수정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마한사 재조명 사업의 전기가 마련됐다.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마한 역사문화권에 기존에 포함된 전남에 이어 광주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는 '마한'이 대한민국 법조문에 처음 수록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국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발굴과 보존 등 마한 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일보사는 창사 70주년을 맞아 (재)호남문화재연구원과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를 주제로 문화 강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강좌는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된다. 국내 고고·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강단에 선다. 마한사를 비롯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송영기 특집·체육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